

12월 종합상황 분석 · 전망 및 안전예보

12월은 강설, 화재, 가스사고 등 자연·인적 재난과 성탄절·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I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1 12월중 기상전망

- ▶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의 변동이 크겠으며,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음.
-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1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2주)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3주)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4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기간 / 지역	요 소	기 온		강 수 량	
		평년(°C)	전 망	평년(mm)	전 망
1주 (12.10~12.16)	영 서	-2.8~0.6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	1.7~5.5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영 동	2.0~4.2		0.2~4.1	
2주 (12.17~12.23)	영 서	-3.6~-1.2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	0.7~3.7	평년과 비슷
	영 동	1.6~3.6		0.0~1.4	
3주 (12.24~12.30)	영 서	-4.9~-2.3	평년과 비슷	0.7~4.5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영 동	0.5~3.1		0.1~1.3	
4주 (12.31~01.06)	영 서	-5.9~-3.5	평년과 비슷	0.6~3.5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영 동	-0.5~1.7		0.0~8.4	

2 사회적 여건

겨울철 화목보일러, 전기·가스 난방기기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송년회 등 연말모임, 얼음·눈시 축제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임.

1. 겨울철 난방기기 취급 증가로 화재발생 우려

- 본격적인 겨울철로 전기·가스 등 인화성 물질 사용 증가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
-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주택화재 증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등 난방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 증가
-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시기로 지속적인 산불 예방·홍보활동 필요

2. 연말·성탄절 등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연말 송년회, 성탄절 등 다양한 모임으로 인한 유흥업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구의 급증으로 안전사고 발생 증가
- 기온 강하에 따른 콘크리트 경화속도 지연 및 연말 무리한 공정 등에 따른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3. 겨울철 지역축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

- 해돋이 축제, 송어축제 등 시·군 별 축제장 중심으로 인파 운집
 - 겨울철 각종 지역축제 및 야외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 최근 3년간('15~'17년) 축제장 안전사고 : 총 32명(낙상 16명, 놀이기구 4명, 눈시 비늘 12명 등)

4. 겨울철 스키장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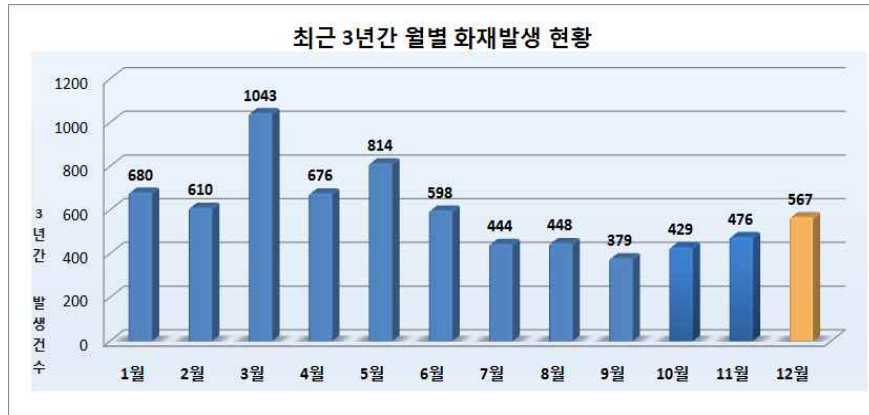
- 대부분 스키장 11월말 개장으로 방학과 성탄절 등 휴일을 맞아 스키장 및 눈썰매장 안전사고 증가
- ※ 최근 3년간('15~'17년) 스키장 안전사고 : 총 298명(스키 202, 보드 78, 낙상 4, 기타 14)
- '15년 99명, '16년 106명, '17년 93명 / 낙상 216명, 충돌 41명, 질병 27명, 기타 14명

II 소방활동 분석 (최근 3년간 12월중)

1. 화재발생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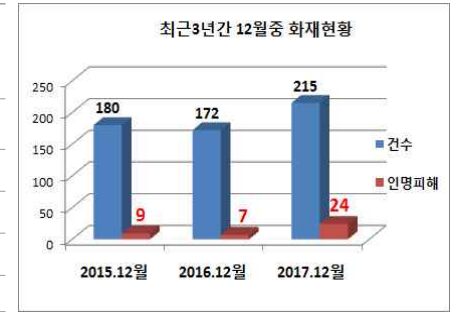
동절기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 위험이 높고, 재래시장, 다중이용 시설 등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최근 3년(15~17년)간 도내 화재는 총 7,164건이 발생하여 386명(사망 57, 부상 329)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2,388건(인명피해 129건), 월평균 199건(인명피해 11명)이었음.
- ※ 연도별 화재 건수(월평균) : 15년 2,485건(207건), 16년 2,315건(193건), 17년 2,364건(197건)
- 최근 3년간(15~17년) 월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12월은 전체 7,164건의 7.9%(567건)를 차지하여 3년간 월평균 597건보다 적게 발생하였음.



- 3년(15~17년)간 12월중 화재는 연평균 189건(총 567건), 사상자 13명(총 40명)이 발생하여 1,080,596천원(총 3,241,788천원)의 재산피해를 냈음.
-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2월 평균 13명으로 사망자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명이었으나 2017년 8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2015년 8명, 2016년 6명, 2017년 16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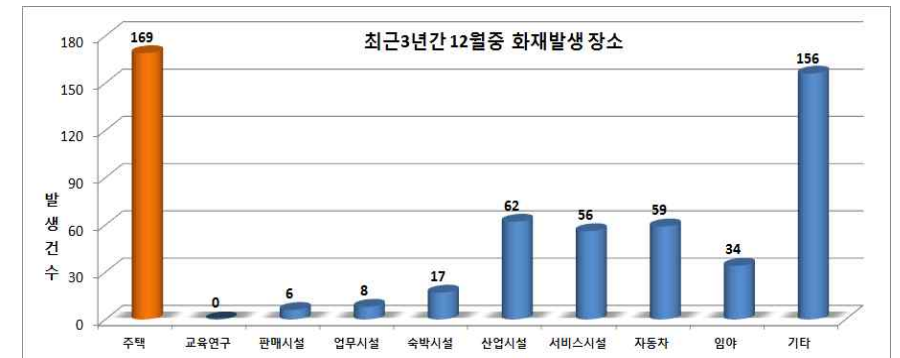
구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3년 12월 평균	189	13	3	10	1,080,596
2015.12월	180	9	1	8	869,681
2016.12월	172	7	1	6	932,989
2017.12월	215	24	8	16	1,439,118
총 계	567	40	10	30	3,241,788



- 화재 원인은 12월 총 567건 중 부주의 291건(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94건(16.6%), 기계적 요인 87건(15.3%), 화학적 요인 14건(2.5%), 기타 8건(1.4%), 방화(의심) 6건, 가스누출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 169건(29.8%), 산업시설 62건(10.9%), 자동차 59건(10.4%), 서비스시설 56건(9.9%), 임야 34건(6%), 숙박시설 7건(3%), 업무시설 4건, 판매시설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구조·구급 활동 분석

빙판길 교통사고, 낙상사고, 겨울철 산악사고 구조활동 및 기온변화로 인한 질병환자 이송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구급 출동태세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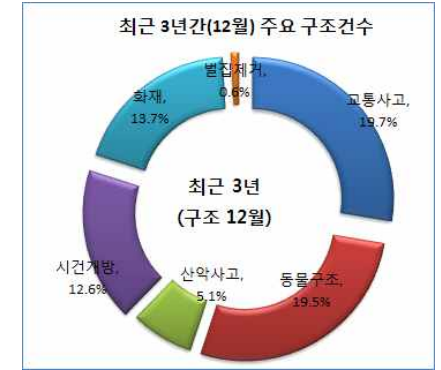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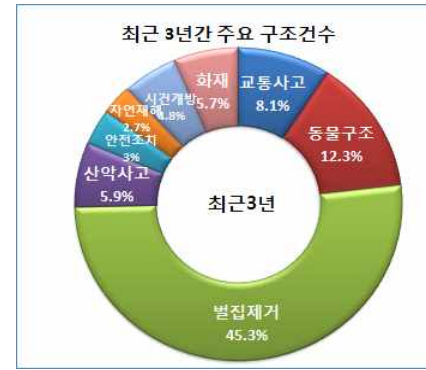
- 최근 3년간(15~17년) 12월중 평균구조 866건(317명)과 평균구급 5,419건(5,623명)은 전월 평균구조 886건(299명)과 평균구급 5,198건(5,421명)과 비교하여 약간의 증가세를 보임

구 분	구 조		구 급	
	구조 건수	구조 인원	이송 건수	이송 인원
3년12월 평균	866	317	5,419	5,623
2015.12월	764	367	4,896	5,091
2016.12월	838	305	5,363	5,576
2017.12월	995	279	5,997	6,203
총 계	2,597	951	16,256	1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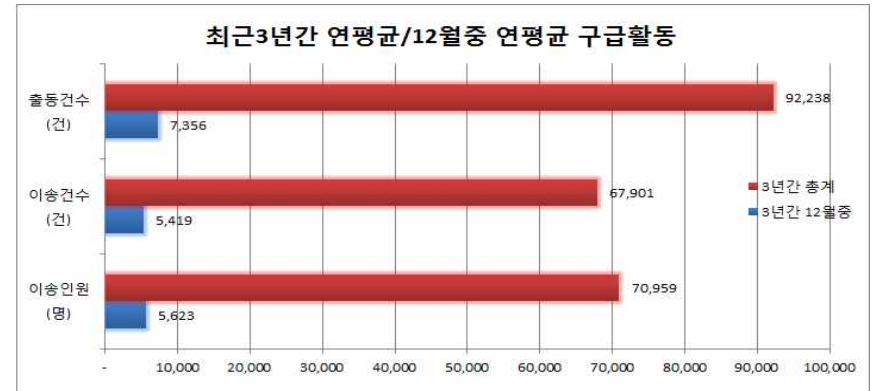


- 3년간(15~17년) 전체 구조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벌집제거가 45.3%(30,3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동물구조 12.3%(8,230건), 교통사고 8.1%(5,408건), 산악사고 5.9%(3,974건), 화재 5.6%(3,787건), 문 개방 4.8%(3,229건), 기타 안전조치 3.2%(2,145건) 등의 순이었음.
- 3년간 12월중 구조출동 실적은 교통사고가 511건(19.7%)으로 가장 많고, 동물구조 507건(19.5%), 화재 355건(13.7%), 문 개방 326건(12.6%), 산악사고 133건(5.1%), 안전조치 128건(4.9%), 자연재해 43건(3.7%), 승강기사고 55건, 자해범죄 43건, 추락 39건, 위치확인 35건, 수난사고 32건, 인명간힘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계	교통	동물구조	벌집제거	산악	수난	승강기	문개방	자연재해	위치확인	화재	추락	기타
3년간 총계	66,933	5,408	8,230	30,338	3,974	908	720	3,229	1,807	621	3,787	621	7,290
3년12월	2,597	511	507	16	133	32	55	326	95	35	355	39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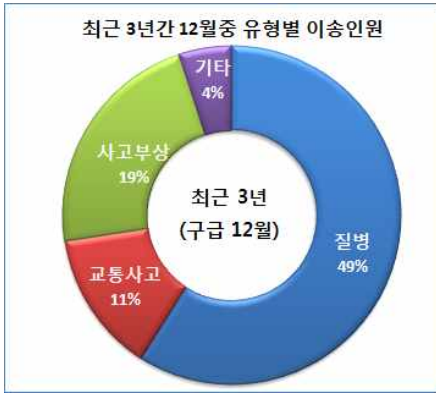


- 3년간 전체 구급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92,238건 출동하여 67,901건(70,935명)을 이송하였고, 그 중에서 12월중에 연평균 22,068건 출동하여 16,256건(16,870명)을 이송함.



구 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비율	미이송건수	비율	이송인원	비 고
3년간 총 계	276,715	203,704	76.9%	73,011	26.4%	212,877	-
3년간 12월중	22,068	15,256	73.7%	5,812	26.3%	16,870	-

- 3년간 전체 구급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이 56.9%(121,03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고부상 24%(50,933명), 교통사고 13.8%(29,477명) 등 순이었음.
- 12월중 구급이송 실적은 질병 59%(9,955명), 사고부상 22.4%(3,777명), 교통사고 13.6%(2,286명), 기타 852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계	질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
3년간 총계	212,877	121,034	29,477	50,993	11,373
3년간 12월중	16,870	9,955	2,286	3,777	852

3. 중점 추진사항

겨울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한 화재예방 홍보 강화 및 산악사고, 교통사고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대비태세 유지

1. 겨울철 화재예방 등 철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통시장 및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지구 안전관리 강화
 -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 연말연시, 성탄절 등 취약시기 화재 특별경계근무 및 예방활동 강화
 -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안전관리 및 화재 행동요령 교육
 -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119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점검 철저
2.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
 - 스키장내 각종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지도
 - 스키장 안전사고 대비 대상처 합동 소방훈련 및 구조·구급 출동태세 확립
 - 스키장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계도 활동 강화

3. 지역별 겨울 축제장 안전관리 지도
 - 대규모 인파 군집 예상시 입장방법, 출입동선 계획, 적정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사고유발 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행정지도 강화
 - 유관기관 협조, 현장 위주의 축제장 주변 안전관리실태 정밀점검,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4. 난방기기 점검·정비 등 관리 지도
 - 난방·전열기기의 휴즈 및 누전차단기 정기점검 실시
 - 전열기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점 파열여부 등 확인 지도
 - 전기장판 합선 및 난방유 급유 시 화재위험 주의 당부

5. 종합상황 관리체계 강화
 - 재난안전상황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철저
 - 현장활동시 대원 안전수칙 준수 및 대응 매뉴얼에 의한 상황대처
 - 화재·교통·가스 등 재난상황 관리강화 및 유관기관 핫라인 점검
 - 유사시 신속한 광역대응체제 가동으로 소방력 집중

III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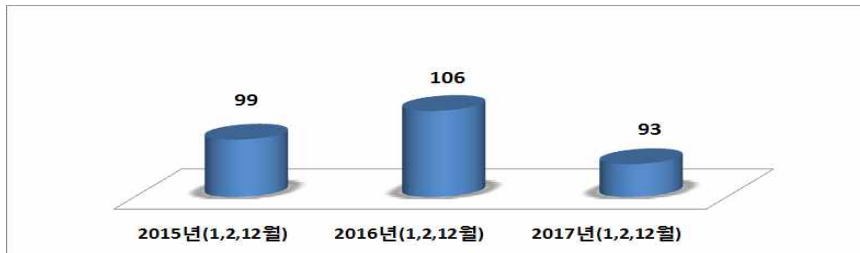
- 소방관서장은 12월 중 발생한 재난 분석 자료를 기초로 각종 재난상황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12월은 난방기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및 성탄절·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화재예방 및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12월 주요재난 안전사고 예보(스키장 안전사고 대처 요령) 1부.
 2. 최근 3년간 12월 화재 주요 사례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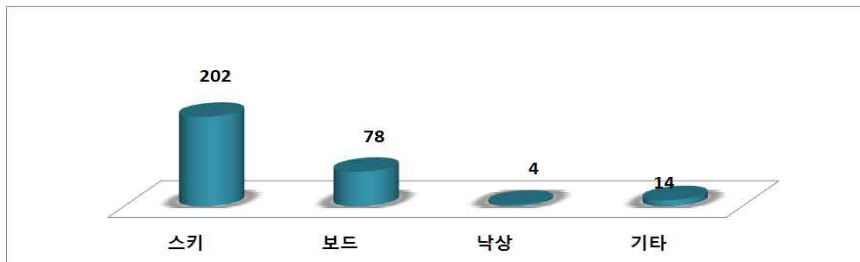
붙임 1 12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

겨울철 스키장 및 축제장 안전사고 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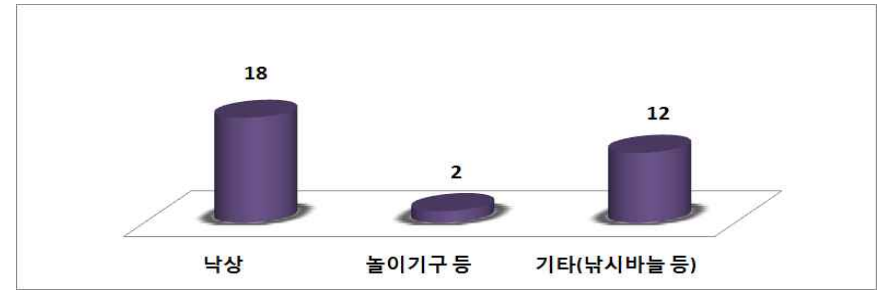
-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스키장과 축제장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 3년('15~'17년)간 1·2월 및 12월중 도내 스키장과 겨울 축제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총 330명(스키장 297명, 축제장 32명)을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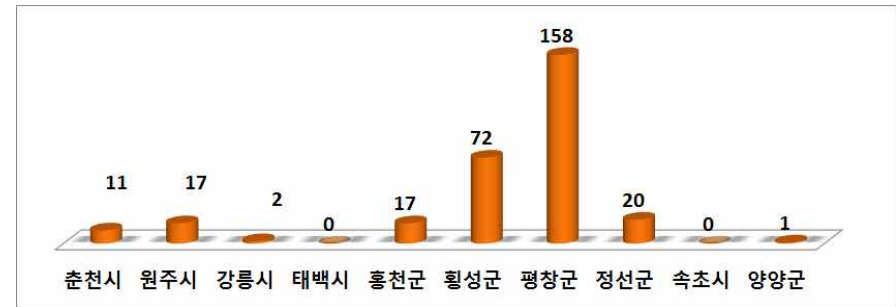
- 스키장에서의 사고원인을 보면 총 298명 중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67.8%(20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스노보드 78명, 일반 낙상 4명, 기타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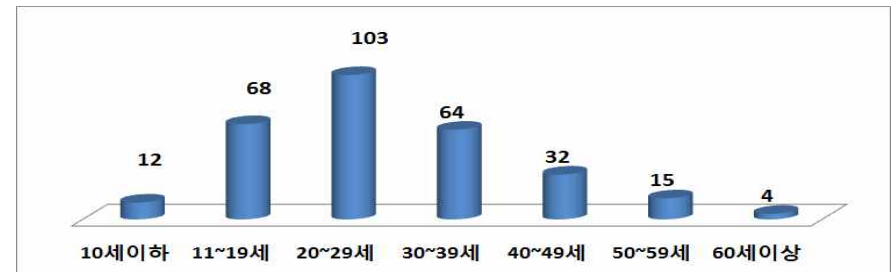
- 겨울철 축제장에서의 사고원인을 보면 32명중 일반 낙상 17명, 썰매 및 놀이기구 3명, 기타 12명(뉘시 바늘에 의한 부상 등)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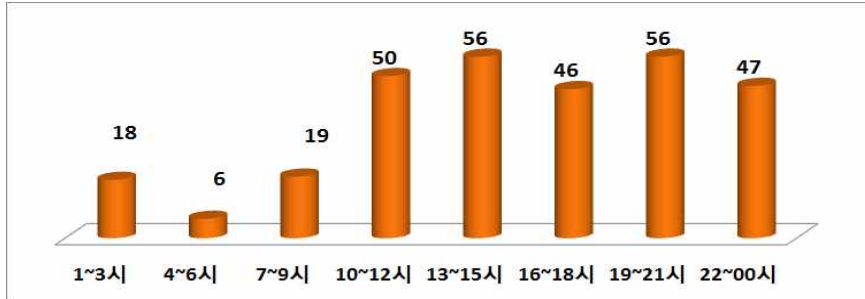
- 스키장 안전사고 지역별로 보면 평창지역 147명, 횡성 64명, 정선 22명, 원주 15명, 춘천 10명, 홍천 12명, 기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 스키장 안전사고자의 연령은 20대가 103명(3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대 68명, 30대 64명, 40대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시간대별로 보면 야간 시간인 저녁 7~9시 사이가 5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오전 10~12시 50명, 낮 1~3시 48명, 밤 10~12시 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 스키장 안전사고 대처 요령 1부.

참 고 스키장 안전사고 대처 요령

리프트 이용방법

1. 타기

- 초심자는 부담 없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앞 사람이 승차를 끝낸 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
- 리프트를 탈 때는 한손을 뒤로 내밀어 리프트를 확인 후 깊게 앉는다.
- 폴을 옆으로 해서 무릎에 놓으며, 2~4인승 리프트의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폴을 손으로 잡는다.
- 리프트 승차 후, 이동 중에는 의자를 흔들거나 스키를 버둥거리는 행위를 삼가 한다.
- 1인승 리프트 이용 시 옆 방향으로 걸터서 승차하는 경우, 리프트 기둥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바른 자세로 탑승한다.

2. 내리기

- 하차장에 가까워지면 안전표지판의 신호에 따라 안전바를 올리고 스키의 앞쪽을 올리면서 내릴 준비를 한다.
- 하차 위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스키 앞쪽을 들고 침착하게 내려 직진한다.
- 2~4인승 리프트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슬로프 활주 중 주의사항

- 자기의 기량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며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 좁은 코스로부터 메인 코스로 합류할 때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단 정지
- 넘어지면 신속히 일어선 후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 충돌사고 발생 방지
- 바인딩이 풀리면 코스의 가장자리로 이동 후 스키를 다시 착용한다.
- 활주 중에 쉴 때는 코스의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 슬로프 표식의 지시사항이나 패트롤의 지시에 잘 따른다.
- 항상 다른 스키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탄다.

스키장 안전수칙

- 준비운동은 반드시 한다.
- 바인딩의 조임 강도는 자신에게 알맞게 조정한다.
- 리프트 탑승 중 심한 몸놀림은 탈선,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삼가고, 정지 시에는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직활강이나 과속, 난폭한 이용은 삼가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소리 치거나 미리 넘어져 충돌을 피한다.
- 코스 중앙에서의 급정지, 휴식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코스 가장 자리를 이용한다.
- 음주 후 리프트 탑승 및 스키·보드 타기는 절대 금한다.
- 한번만 더 타고 그만두고자 할 때, 그때 바로 그만둔다. 이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법

- 본인의 사고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스키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용한다.
-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슬로프에 진입하지 않는다.
- 스키장의 안전관련 방송을 수시로 청취하여 실행한다.
- 스키장의 질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 2 최근 3년간 12월 화재 주요 사례

순번	사고일시	사고개요	피해상황
1	2017.12.5.(화) 06:27	원주시 문막읍 교회 화재 	- 기계적 요인 - 1동 150㎡ 소실 - 4천 백여만원
2	2017.12.19.(화) 11:12	강릉시 사천면 정미소 화재 	- 부주의 - 1동 330㎡ 소실 - 1억 7천여만 원
3	2016.12.8(목) 20:23	강릉시 강동면 돈사 화재 	- 미상 - 2동 610㎡ 소실 - 2억 7백여만 원
4	2016.12.13(화) 00:22	강릉시 입암동 세탁공장 화재 	- 자연발화 추정 - 2동 403.12㎡ 소실 - 1억 2천여만 원
5	2015.12.8(화) 05:15	양구군 방산면 주택화재 	- 화목난로 연통과열 - 1동 165㎡ 소실 - 6천여만 원
6	2015.12.16(수) 17:08	원주시 흥업면 이동탱크 폭발 	- 용접불꽃 추정 - 사무실 50㎡ 및 이동탱크(28,000L) 1대 소실 - 사망 1명 - 1억 4천여만 원